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순례 체험 수기”

이정순 엘리사벳(연풍준본당)

오늘은 충남 아산 남방제 성지와 부여 도양골 성지를 다녀 군산 새만금 신시도 체류지를 이틀에 순례하기로 정하고, 준비해서 이른 아침 6시 전에 대문을 나서니 뜻밖에도 강병운(이르미나)자매가 기다리며 괴산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괴산에서 작별인사를 나눈 후 청주 가는 시외버스 첫차를 탔다.

수차례 걸쳐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운이 좋으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기다리기 일쑤이니 이번 순례를 통해 인내심을 배웠다. 충남 아산 남방제 성지를 거쳐 공주 부여 도양골 성지를 가려고 부여에 도착, 도양골 가는 버스는 이 시간에 없고 내산면 소재지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하여 버스에서 내리니 시간은 벌써 5시가 넘은지라 마음은 조급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택시요금 드릴 터이니 가자해도 험한 산길이라 안 간다는 말뿐이지요. 그러는 중 까만 승용차가 멈추더니 어디 가느냐 하며 방향이 같으니 타라고 한다. 아빠는 장소를 잘 모르는데 2학년이나 3학년쯤 보이는 아들이 길을 안다며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멀고 깊은 산중으로 계속해서 갔고, 가는 도중 길이 험하고 긴 풀이 많아 차에 기스 날까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고마운 마음에 택시비라도 드리려 하니 절대 받지 않고, 아들한테도 못 받게 하시며 그럼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나 해달라며 이름은 “이정”이라고 말 하고는 깊은 산 내리막길을 바쁘게 내려 달리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또한 하느님의 축복이며, 최양업 신부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성지 표지석과 최양업 신부님 시성 기념비 앞에서 시성기도문과 마침기도와 이정 어린이 가족을 위한 기도과 주모경을 바쳤다. 깊고 깊은 산중 이 험한 산골을 어찌 찾아오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찢히고 아파온다. 작은 피정의 집이 있어 큰소리로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 하루속히 최양업 신부님이 성인품에 오르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발길을 돌려 장엄한 복숭아나무와 숲속 터널로 연결된 산길 따라 인가도 인적도 없는 어두워지는 산골길을 소리 내어 묵주기도 하며 발길 재촉하여 내려가는 길, 굽이굽이 산모퉁이 돌아 시간은 어느새 8시를 넘어 해는 지고 땀은 비 오듯 옷을 적시며 멀리 보이는 불빛에 반가운 마음 허둥지둥 불빛 향해 달려가 ‘성지순례자 인데요’하니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흰 수건으로 모기 쫓으며 앞장서 가니 위안이 되어 뒤따르는 이 마음이 편했다.

한참 동안 걷다 보니 멀리 불빛이 보이며 저기가 삼거리인데 시내 나가는 마지막 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으면 삼거리 집 주인보고 택시 불러 달라고 하세요.

하며 돌아서는 여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 푸근한 인정에 감사를 드리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답하리라 다짐을 해본다. 어두운 밤길을 걸은 탓인지 아픈 다리 허기진 배에 몸의 힘이 없어진다. 밤길 무서울세라 동행해 주시고 부여 나가는 막차를 타도록 해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렸다.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로 부여에서 논산 가는 시내버스를 즉시 탈 수 있었으며 논산역에서도 운 좋게 무궁화호 열차를 즉시 탔으며 밤 10시가 넘은 후에야 익산역에 도착 캄캄한 밤,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역 광장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에 두 사람의 그림자와 말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충북 괴산 연풍에서 온 성지순례자인데 잠잘 수 있는 곳을 알려 달라 하니 신사분이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들어가 한참 뒤에 오라는 손짓에 다행이도 방이 있다며 편히 쉬라는 말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파크”에 들어가 숙박비를 내려하니 저분들이 내주고 갔다는 것이다. 뉘신데 숙박비를 내셨다는 겁니까? 하니 익산의 유지라는 말 밖에는 전해 들을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두운 밤에 숙소를 알려 준 것만도 고마운데 “숙박비”까지 내주고 가는 일이 있다니 참 황당하기도 했다. 오늘의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7월 13일 오늘도 일찍 일어나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아침기도와 순례기도를 마치고 빵과 우유 한 컵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익산역에 나와 아침 군산 열차를 타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상쾌한 아침 공기가 은혜롭기만 했다. 묵주기도로 감사의 맘을 전하며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맘껏 즐기며 군산역에 도착 이른 아침이라 조용한 대합실에 앉아 묵주기도로 첫차가 올 시간을 기다리며 시내버스를 타고 여러 차례 번갈아 타기를 반복하여 드디어 새만금 신시도 가는 버스를 타고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수평선을 감상하느라 목적지를 지나쳐버린 그 덕에 신시도 마을 전체를 돌아보게 되어 전망대, 해수욕장, 전망쉼터를 지나 신시도 광장에 내려 잠시 걸어 체류지에 도착 먼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과 순례 마침 기도를 바치며 체류기간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7월 중순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달아오른 바닥 나무 그들도 건물도 차도 사람도 하나 없는 이 넓은 광장 외딴 섬에 나 혼자 서 있다. 전에 없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순간 허술해 보이는 트럭 한 대가 광장으로 올라와 내 앞에 멈추고 한 청년이 차에서 내리며 왜 이곳에 혼자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 청년은 군산에 살면서도 이곳은 처음이고, 개신교에 다니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곳에 오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순례 오셨으니 기념사진도 남기고 구경도 하셔야지요? 먼저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 아래 새만금 33센터도 가보고 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하며 이곳은 섬이라 버스가 자주 없다는 말과 함께 지저분해도 자신의 트럭을 타라고 하였다. 이 찜통더위에 고생 많이 하실 것이라는 말과 함께... 새만금 광장 33센터를 돌아 시원한 바다를 건너 군산 시내를 지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 주며 대전이나 청주 가는 버스를 타고 조심해서 가시라는 인사와 함께 돌아서는 청년에게 주소와 이름을 달라고 하니 전북 군산시 축동로 강종윤을 남기고 바쁘게 달리는 청년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

이 들었다. 너 혼자 고생하지마라 “나”여기 있다 그 청년을 통해 체험을 주셨다고 확신이 들었다. 집에 오는 길 창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고 노을 지는 하늘, 붉은 구름이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사진에 담아 두지 못한 아쉬움에 안타까울 뿐이다. 순례하는 성지 곳곳마다 색다른 체험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